

나주시, 120만평 RE100 산단에 반도체 기업 유치 시동

에너지국가산단 20만평·노안 일반산단 100만평 공급 가능
전력·공업용수도 풍부...시, 전략회의서 시스템 구축 등 논의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한 나주시가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RE100(재생에너지 전용)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120만평 규모 산업단지와 용수·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실증 인프라 집적으로 에너지 수도에 비유되는 나주시는 에너지국가산업단지 20만평과 노안 일반산업단지 100만평 등 총 120만평의 산업 용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과 공업용수도 타지역 대비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열린 전략회의에는 시 관계자와 투자유치 자문관, 학계 전문가, 전력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과 전력 거래 시스템 구축, 단계별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략회의에서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퍼센트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는 한국전력 분사를 비롯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국립나주 에너지과학관, K-그리드 인재 장업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RE100 산업단지의

실효도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강혜민 한국에너지공단 교수도 "나주는 훌륭한 교육인프라와 교통 및 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 집중할지,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춘다면 삼성 계열의 전력반도체 기업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력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분야와 연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며 재생에너지 공동 활용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와 ESG 경영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2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와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RE100 특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수도 나주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지난 9일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장성군, 농촌 빈집 철거비 지원 200만→300만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건물
다음달 접수...초과비 본인 부담

장성군이 올해부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철거 지원금을 33% 확대한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부속 건축물 철거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기존 1호당 200만원이던 철거 지원금을 올해부터 최대 300만원으로 늘렸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슬레이트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물기부등본을 지참해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초과 발생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장성군은 지역 내 농촌 빈집이 총 542채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성읍이 79채로 가장 많고, 북하면 70채, 남면 61채 순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물을 군이 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 주택.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고 각종 사고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 쭉쭉~

청자축제·주말 3000원 할인 계속...매출 110억 돌파 전남 1위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2026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산업구조 중 3차산업이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3차산업의 주인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배양책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일으키고, 그 매출액은 다시 강진군 소상공인에게 수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먹깨비가 전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강진군에서 운영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매 가맹점 353개소, 누적 회원 수 7756명 누적 주문 수 42만 3000여 건 등의 운영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의 먹깨비 누적 매출액은 2025년 12월 기준 12월 110억원을 돌파해 전라 지역 시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2026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는 다음 달 21일 개최되는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기념 할인이벤트와 '주말 3천원 할인이벤트'로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축산물 경쟁력 강화 군민 핫플로 변신한 '함평실내수영장'

31개 분야 보조사업 접수

장성군이 오는 23일까지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축산농가 보조사업'은 축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펼쳐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올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양돈농가 사양 관리 개선제 지원 ▲가금류 캄프 참가제 지원 ▲꿀벌 기자제 지원 등 총 31개 사업을 시행한다.
조사업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오는 2월 중 축산·농촌·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열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뒤 교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연말까지 시행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축산농가 보조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형 축산 농장을 확대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높여 농가 소득을 안정화할 방침"이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해 문을 연 함평실내수영장 전경.

개장 첫해 6만7000명 이용

지난해 함평군에 문을 연 함평실내수영장이 개장 첫해 이용객 6만7000명을 달성하는 등 군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에는 6만756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함평실내수영장은 ▲학생 수영 교육 ▲지역 수영 동호회 활동 ▲노년층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되며 공공 체육시설로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성인·노년층 맞춤형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수강생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올해에도 군민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실내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1070건 1억 3409만원 규모...16일~2월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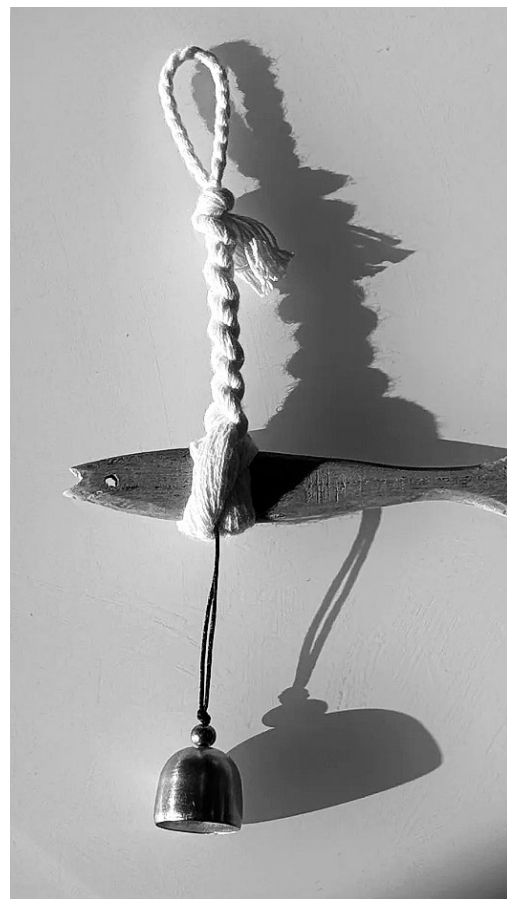
담양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18일간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및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 청년들 공예 만들며 힐링~

청년센터 '청춘들락' 4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에서 1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요소가 결합된 총 4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일상에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이트백쇼 만들기'는 유럽의 전통 음료인 빵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한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화이트와인에 향신료와 과일을 더해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향긋한 음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새해의 액운을 막고 행운을 기원하는 '액막이 명태 만들기'는 나무를 깎아 명태 인형을 직접 만들어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공예 프로그램으로 23일 오후 7시에 운영된다.
'SNS 퍼스널 브랜딩 시작하기'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감성과 개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을 설계하는 실습형 교육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7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액막이 명태 만들기 수업.

'2026년 효율적인 시간관리&루틴 만드는 방법'은 새해를 맞아 자신의 시간과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관리와 루틴 설계를 돕는다. 해당 강의는 29일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청년센터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되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청춘들락 누리집(www.hwasun.go.kr/youth) 또는 청년센터(061-372-3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장애인 77명에 일자리

12억 투입 일자리사업 시행...사회 참여·자립 지원

장흥군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총 12억원을 투입해 7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에는 심사를 통해 장흥종합사회복지관과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 (사) 시각장애인연합회 장흥지회가 민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을 완료했다.
총 110명이 신청해 77명이 선정됐으며, 전일제 20명, 시간제 21명, 복지일자리 33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는 안전보건과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참여자들은 도서관, 보건소, 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배치기관에서 장애 유형과 개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